

광양시, 전라남도 으뜸숲 '옥룡사 동백나무숲'

옥룡사 터·1만여 그루 동백나무 비움과 채움의 미학 올해부터 시민·관광객 만족하는 고품격 동백축제 전환

전라남도 2월의 으뜸숲으로 선정된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옥룡사 터와 뿔뿔하게 떨어진 1만여 그루 동백나무가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실현한 공간이다. 옥룡사는 백운산 지맥인 백계산 남쪽에 자리했던 사찰로 선각각사 도선이 35년간(864-898년) 머물며 제자를 양성하고 입적한 곳이다. 동백나무숲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비보풍수를 강조한 도선이 옥룡사를 중수하며 사찰 주변의 화기(火氣)를 누르고 땅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옥룡사는 1878년 화재로 소실돼 몇 개의 주춧돌로 남았지만, 10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하는 동백나무들은 해마다 곱게 꽃을 피우며 천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남부지방 사찰 숲의 원형이라는 학술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을 높이 인정받아 천연기념물(제48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출고 메마른 겨울에도 수분을 가득 머금은 채 짙은 초록빛을 간직하고 있는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강한 생명력과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 3월이 절정인 겨울 옥룡사 동백나무숲에서 꽃을 기대하는 건 무리지만 봄에 도해날 붉은 동백을 잉태하고 있는 겨울숲은 기(氣)와 생명으로 충만하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전라남도 으뜸숲으로 인정받은 옥룡사 동백나무숲은 풍수의 대가 선각각사 도선이 선택한 땅으로 고요와 생명의 웅성거림이 공존하는 정중동의 공간이다"고 말했다.



이러 "아직 선홍빛 동백을 보긴 어렵지만 붉은 생명을 잉태한 고목의 은근한 자태와 숲이 간직한 내력을 읽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며, "기와 생명이 흐르는 옥룡사 동백나무숲을 찾아 활기찬 토끼해를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매년 3월 말, 옥룡사 동백나무숲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문화행사를 올해부터 한층 업그레이드해 시민과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품격 축제로 전환 운영할 방침이다.

광양=김현근 기자

고흥군, 가정폭력 상담 안내 홍보 방식 개선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정폭력 사전 예방 및 제발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식을 안심귀갓길 로고라이트를 활용하여 개선했다고 밝혔다. 안심귀갓길 로고라이트는 고흥군에서 2020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두운 도로에서 시민성을 향상시켜 통행안전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범죄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설치한 사업으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다문화 가정 중 47%를 차지하는 베트남 이주여성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상담 홍보용 로고라이트 번역을 확대해 가정폭력 사전 예방 및 제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김동채대부



보성군, 김규용 신임 부군수 주요 업무보고 실시

보성군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제 34대 신임 부군수 주요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일 부임한 김규용 부군수가 군정 주요 업무 및 현안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원활한 군정 수행과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중단없는 보성 발전을 이끌고자 마련됐다. 김규용 부군수는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 및 전라남도 도정 시책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풍부한 도정 경험과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군정 홍보 강화, 지속적인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예산 확보 등 대내외적으로 보성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군수는 생활, 산업, 관광 등 3대 SOC 프로젝트의 완성, 남해안-경전선 철도 개통, 보성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 보성=김명순기자

여수시, 설 명절 앞두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체불임금 ZERO, 준공검사 및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민생 안정에 행정력 집중'

여수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적기 임금 지급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사비와 물품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불임금과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금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 간에는 여수시 회계과(☎061-659-3176)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061-659-3345-7)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여수시는 설 명절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 검사 기간 단축(7일→3일) ▲대가 신속 지급(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업체 지급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임금 지급 여부 확인 후 체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 등을 추진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근로자와 영세업체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으며,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시에서 직접 지불하는 등 임금체불과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여수=김현근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신뢰 행정 읍면동장으로부터"

2023년 첫 읍면동장 회의에서 현장·소통 행정 당부

순천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새해 첫 읍면동장회의를 개최했다. 노관규 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순점식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읍면동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읍면동장은 지역의 당면 현안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해 인사로 14명의 읍면동장이 교체되어 현장행정 추진에 있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속지와 누수 없는 읍면동 행정을 주문하기 위해 인사 후 9일 만에 개최됐다.

노 시장은 지난 폭설 시 빠른 대처와 2022년 행안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사례를 들며 읍면동장이 재해 취약지역의 사전 점검 등 제 역할을 다 해주었기 때문이라며 현장행정의 중요성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또,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는 행정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민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읍면동장에게 대면 홍보와 기관, 단체, 향우회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